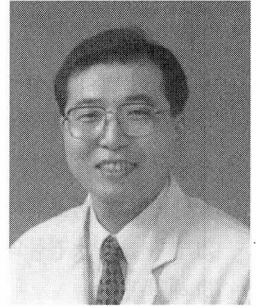


# 안면신경마비



중앙한방병원 원장

임 장 신

20대 중반의 미스 김은 며칠 전부터 몸의 피로를 부쩍 느껴 왔다. 지난 주말에 남자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심하게 싸운 후 미스 김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나쁜 놈.... 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무수한 생각들이 머리 속을 지나고 억울한 생각과 답답한 마음을 누를 수가 없었다.

깊은 생각과 불면 속에 이틀을 지낸 후 아침 부시시한 얼굴을 화장실 거울로 비춰본 순간 미스 김은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다. 아랫 입술이 밑으로 처지고 눈이 감기지 않고 입술이 꼭 다물어지지 않으며, 얼굴 한쪽이 한대 맞은 것처럼 얼얼한 것이다. 눈물이 갑자기 흐르고 무서운 생각이 났다.

안면마비의 원인에 대해서는 혈관허혈성설, 바이러스설, 유전설, 자가면역설 등이 있으나 동맥수축으로 인해 안면신경으로 가는 혈액공급에 장애가 생기고 그 결과 안면 신경관속의 신경에 부종이 발생하여 마비를 초래하거나 혹은 부종으로 인한 압박 때문에 마비가 생긴다는 혈관허혈성설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나 혈액 순환장애의 원인에 있어서는 차가운 것에 노출, 정신적인 충격, 감정적 불안 및 특수한 해부학적 위치 등이 유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간혹 두개골의 외상이나 수술 등으로 인한 두개내외상, 측두골 내 외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으며, 외상이 아니더라도 중이염이나 내이염 대상포진 등 감염으로 인한 염증에 의한 경우와 청신경 및 안면신경

종양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안면신경마비의 증상은 안면표정근이 마비되고, 입 끝은 밑으로 처지며, 코밑주름과 피부의 주름은 없어지고, 앞이마의 주름도 없어지며, 눈을 감을 수 없게 된다. 눈꺼풀도 처지고 마비된 쪽으로 눈물이 흐르며, 음식물이 입술과 치아사이에 고이게 되고, 침이 입의 마비된 쪽으로 흘러나온다.

환자는 안면에 목직한 감각과 무감각을 호소하며, 현저한 미각상실이나 지각상실은 없다.

이러한 안면 신경마비가 있는 환자는 정확한 원인에 의한 적절한 치료를 해야하며, 스스로 안면부에 마사지와 운동치료를 한다. 안면부 마사지는 양손을 따뜻하게 비빈 후 한쪽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즉 턱쪽에서 귀쪽으로 massage를 하고, 반대쪽에도 하는데, 마비 측과 반대쪽의 비율을 8:2로 하는 것이 좋다. 하루에 2~3회 정도 10분 정도 실시한다.

운동치료로 눈을 꼭 감기, 미소짓기, 입을 꼭 다물기, 휘파람불기나 촛불 끄기, 풍선불기, 윗입술 올리기, 앞이마에 주름잡기, 콧구멍 넓히기, 얼굴전체를 찡그리기 등을 거울을 보며 반복한다.

안면신경마비가 온 경우 적절한 초기치료 및 원인 치료를 하고, 정신적인 피로와 육체적인 피로를 같이 풀어주면서 이기거풍탕이나 가미귀비탕을 복용하면 빠른 시간안에 완전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문의 : 032-5000-176 